

한옥의 확장과 진화

김용미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한옥의 현주소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로 지어진 한옥은 흔히들 ‘신한옥’ 또는 ‘현대한옥’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는 우리가 이제까지 봐 온 전통한옥, 그리고 여전히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근대한옥과 비교해서 기능·공법·재료 등 많은 부분이 현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신한옥은 현대건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여 춥고, 불편하며, 유지·관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더불어 현대의 다양화된 용도와 기능을 일부 수용하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 최근 활발히 짓고 있는 은평한옥마을의 주택들은 대부분 현대화된 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북촌한옥마을이나 전주한옥마을 같은 곳에는 이미 많은 소규모 상점들이 한옥으로 들어섰다. 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옥 유치원, 한옥 어린이도서관, 한옥 전시관 등 규모가 크지 않은 많은 건물에서 한옥의 접목이 시도되고 있다. 이를 보면 한옥이 단순히 과거의 건축양식이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자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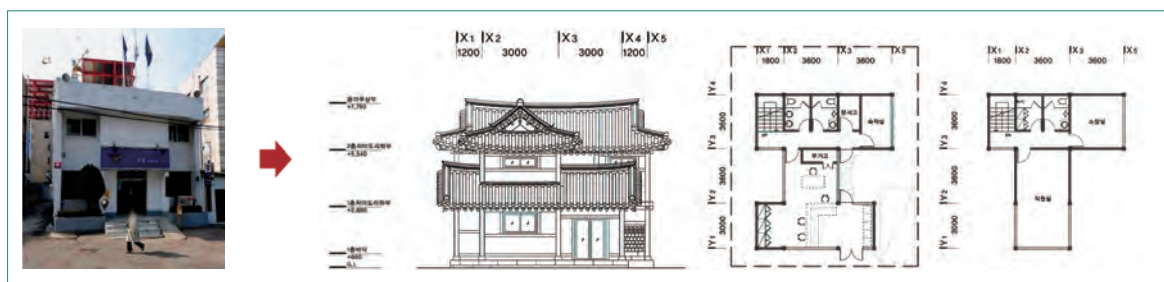


현대적 공법이 적용된 은평한옥마을의 주택

이러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옥이 더욱 확장·진화하기 위해서는 용도의 다변화, 구조·재료의 다양화, 그리고 중층화가 이루어져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경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용도의 다변화

지금까지의 한옥이 대부분 주택과 소규모 상점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앞으로의 한옥은 좀 더 다양한 용도의 현대적 기능을 수용하는 건축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그 예로 어느 동네에나 있고 주로 2~3층 규모인 치안센터나 주민센터·소방서 등 비교적 소규모의 공공건물부터 한옥으로 건립한다면, 민간에서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방배동 한옥치안센터 계획(안)



저층 한옥아파트 계획(안)

자료: 「공동주택 한옥디자인」, 대한주택공사, 2009.

또 그러한 시도로 인해 일반인들의 한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도서관·체육관·청사 등의 대규모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호텔·아파트 등의 민간 건물에서도 한옥이 접목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직은 우리가 한옥으로 시도해 보지 못한 많은 용도의 건물이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한옥으로 그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한옥 구조·재료의 다양화

목재의 가구식 방식으로 이루어진 한옥은 근본적으로 다층구조와 대공간을 형성하기에 불리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옥으로 계획하더라도 다층구조와 대규모 공간이 필요한 경우, 남산 국악공연장이나 해남 윤선도전시관처럼 한식목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수직적으로 결합하거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를 기본으로 목재를 의장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도 나름대로의 성과이지만, 한옥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구조와 재료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본의 전통가옥을 경량목구조로 변환하여 성공한 세키스이 하우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옥의 산업화와 단가절감을 위한 경량목구조의 한옥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구조용 집성목을 이용해 대공간을 형성하거나 목구조와 철골구조, 또는 목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하이브리드구조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남산 국악공연장 전경



해남 윤선도전시관 내부



일본 세키스이 하우스

자료: 세키스이 하우스 홈페이지(www.sekisuihouse.com)



구조용 집성목을 이용한 한옥의 대공간

한옥의 중층화

한옥의 중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적 기능이 요구하는 높은 층고를 어떻게 한옥 스케일의 입면비례로 만들어 내느냐이다. 전통한옥에서의 중층은 1·2층의 층고가 높지 않아 인간적 스케일을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1층은 높고, 2층은 낮게 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하여서 2층이지만 꺾층해 보이지 않게 한다.

2층 이상의 한옥을 건립할 때 건물을 수직으로 형성하고, 마지막 층에만 목구조한옥을 올리는 방식은 입면의 비례가 맞지 않아 꺾층해 보이고, 전혀 한옥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한옥에서는 인간적 스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층을 앞에, 2층을 뒤에 놓는 방식으로 1·2층 건물을 결합한다. 아울러 수직한옥일 경우에는 층마다 수평으로 여러 번 나눔으로써 스케일이 줄어 보이게 해야 좀 더 한옥스러운 입면이 된다.



덕수궁 석어당



내소사 봉래루

이러한 한옥의 입면비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과 검증이 필요하지만, 한옥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맺음말

한옥 용도의 다변화, 구조·재료의 다양화, 중층화를 통한 한옥의 확장과 진화는 궁극적으로 대규모 단지로서의 한옥 조성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한옥들이 모여 형성하는 가로 및 지역경관은 국적불명의 풍경 대신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와 동네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한옥의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옥을 과거의 건축양식으로 생각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제는 한옥의 발전 또는 확장을 위해서 좀 더 유연한 시각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옥 가로경관